

# 하나님의 법: 부록 4: 그리스도인의 머리카락과 수염

너무나 단순하지만 완전히 무시된 하나님의 명령

## 레위기 19:27의 명령

모든 기독교 교단이 남성의 머리카락과 수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에 대해 성경적 정당성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시대 동안 모든 유대인들이 이 명령을 한결같이 지켰으며, 오늘날 초정통파 유대인들도 여전히 이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에는 성경 본문의 오해로 인해 비성경적 세부 규칙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그분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이 토라에 기록된 모든 명령들—레위기 19:27을 포함하여—성실히 지켰다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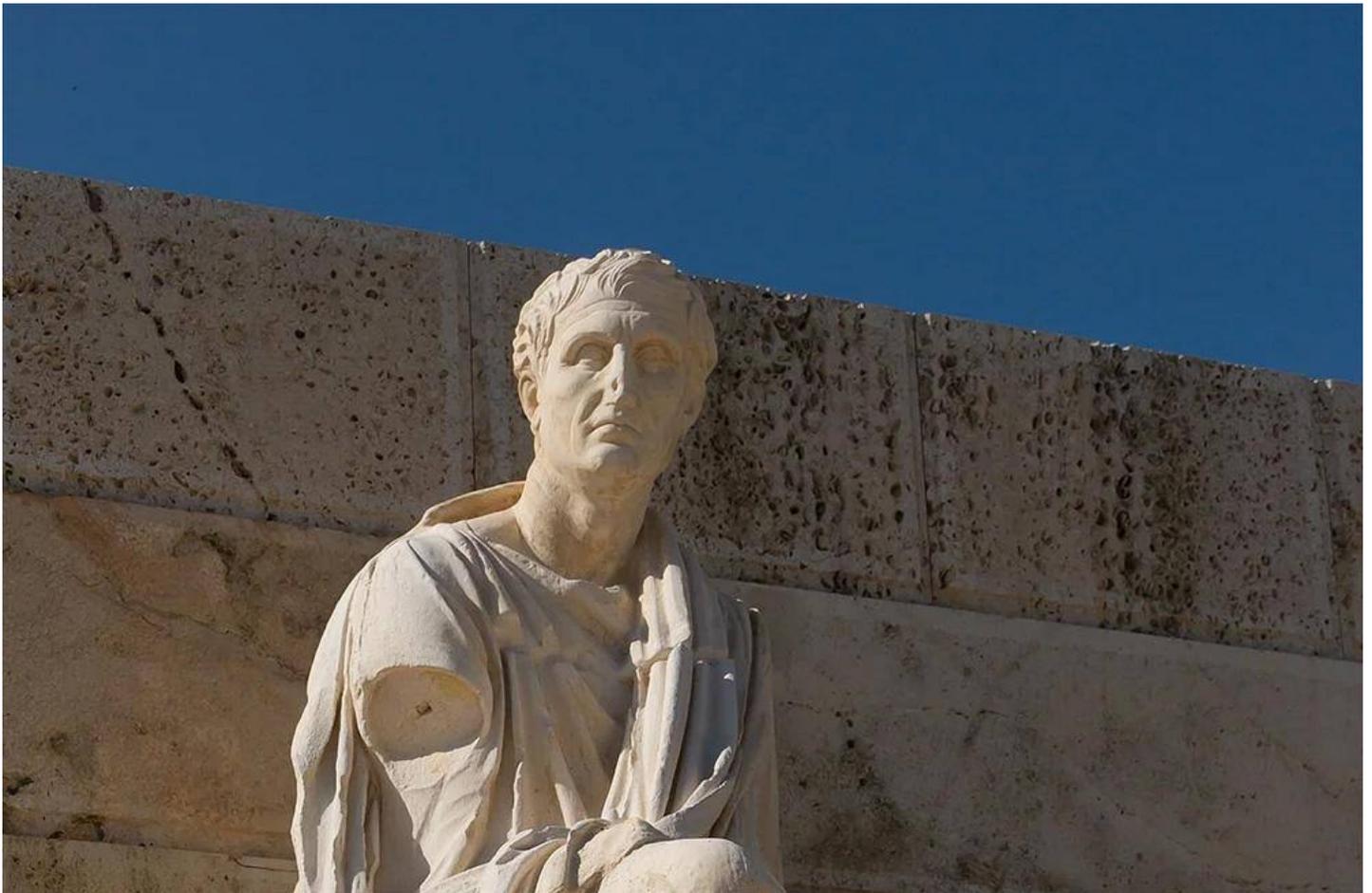
*“머리 주변의 머리카락을 깎지 말고, 수염의 윤곽을 피부에 가깝게 깎지 마십시오.”*

## 그리스와 로마의 영향

초기 기독교인들은 기독교 초창기 수세기 동안 문화적 영향으로 인해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이 명령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 문화적 관습과 타협

기독교가 그리스-로마 세계로 퍼지면서, 회심자들은 자신들의 문화적 관습을 교회로 가져왔습니다.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은 위생과 단정함의 기준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듬고 면도하는 것을 일반적인 관습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습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의 습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로마인과 그리스인의 외모에 영향을 받아 하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에 대한 법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 교회의 실패

이 시점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예언자들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변함없이 고수해야 했습니다. 문화적 가치나 사회적 관습에 휩쓸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어떠한 계명이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타협했고, 그 결과가 대대로 전해져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율법에 끝까지 충성하는 능력이 약화된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남은 자들

이 약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던 교회와는 매우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렇듯이 소수의 남은 자들을 보존하셨기 때문에 존재할 뿐입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칠천 명을 내가 남겨 두었다”(열왕기상 19:18).

## 이 명령의 중요성

### 순종의 표시

머리카락과 수염에 대한 명령은 세상 문화로부터의 분리와 순종의 분명한 표시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침을 사회적 기준보다 우선시하는 삶을 나타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이 명령을 성실히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본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 충실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 예수님, 수염과 머리카락

### 최고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 이 세상에서 영생을 구하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의 중요성을 몸소 증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본보기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분의 동시대 사람들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미래 세대의 제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 랍비 전통에 도전하신 예수님

예수님 당시, 그분은 **토라**를 충실히 준수함으로써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수많은 랍비적 가르침에 도전하셨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경건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인간 전통에 사람들을 얽매이게 만드는 왜곡된 규례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에 대한 명령이 폐지되었다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모두 율법에 따라 머리카락과 수염을 지켰습니다.

##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은 순종

예수님은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계명을 포함하여 토라를 온전히 지키심으로써 이러한 왜곡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수하고 변질되지 않은 순종의 모범을 세우셨습니다.

## 예언과 고난 속의 예수님의 수염

예수님의 수염은 예언과 고난 속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이사야가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할 때, 예수님이 겪을 고통 가운데 하나로 수염이 뽑히는 장면을 언급합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뽑을 맡겼으며, 모욕과 침 뱉음을 피하지 않았다”(이사야 50:6).

이 장면은 예수님이 신체적으로 고통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에 끝까지 순종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본을 따라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며 살아야 함을 강력히 상기시켜 줍니다.

## 이 영원한 계명을 올바르게 지키는 방법

### 머리카락과 수염의 길이

남성들은 머리카락과 수염이 명확하게 보일 수 있도록 길러야 합니다. 너무 길지도, 너무 짧지도 않게, 머리카락과 수염이 있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 자연스러운 윤곽선을 깎지 말 것

머리카락과 수염은 자연스러운 윤곽선을 따라 그대로 두어야 하며, 깎거나 다듬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히브리어 단어 *페아(pe'ah)* ([פֵּאָה](#))로 표현된 부분으로, “윤곽선”, “모서리”, “가장자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머리카락 각각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 전체의 경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단어 *페아(pe'ah)*가 밭의 가장자리를 수확하지 말라는 계명에서도 사용됩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수확할 때, 밭의 가장자리(페아)를 다 거두지 말고...”(레위기 19:9).

이는 곡물 높이나 길이가 아니라 밭의 경계를 의미하는 것처럼, 머리와 수염에서도 자연스러운 윤곽선을 존중해야 합니다.

### 계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 사항

1. **눈에 띄게 유지할 것:** 머리카락과 수염이 명확하게 보이게 해야 하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구별된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2. **자연스러운 윤곽선 보존:** 머리카락과 수염의 자연스러운 경계를 깎거나 손대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따름으로써 남성들은 하나님의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영원한 명령을 충실히 지킬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그분의 계명을 존중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남성을 위한 머리카락과 수염

### 옳은 모습

머리카락(모든 방향), 수염(목 부위 포함), 그리고 콧수염의 자연스러운 윤곽이 유지되어 있으며, 인위적으로 손대지 않았다.



### 잘못된 모습

머리카락, 수염, 그리고 콧수염의 자연스러운 윤곽이 인위적으로 변형되었다.



hananimuibep.org

##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잘못된 주장들:

### 잘못된 주장:

#### “수염을 기르고 싶은 사람만 지켜야 한다”

메시아닉 리더들을 포함한 일부 남성들은, 수염을 전부 면도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비논리적인 논리에 따르면, 수염(또는 머리카락)을 기르기로 선택한 경우에만 하나님의 지침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는 이런 편리한 논리는 없습니다. 조건부 “만약”이나 “경우에 따라”라는 문구 없이, 단순히 머리카락과 수염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만 주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적용한다면 다른 계명들도 쉽게 무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 “나는 어떤 날도 지키지 않으니 굳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다.” 또는
- “나는 접시에 어떤 고기가 올라오는지 묻지 않으니 금지된 고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쁨이 아니라 불편으로 여기고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들의 태도와는 정반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깨닫게 하사 주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며, 전심으로 준행하게 하소서”(시편 119:33-34).

## 잘못된 주장:

###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계명은 주변 이방 민족의 이교도 관습과 관련되어 있다”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머리카락과 수염에 관한 계명은, 주변 이방 민족들이 죽은 자를 위해 행하던 이교도 관습과 연결된 것이라고 잘못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인접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관습이 언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 맥락과 유대 전통을 살펴보면, 이 해석이 성경적 근거가 부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단순히 외모에 관한 명령이며, 죽은 자나 이교도 관습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 레위기 19장의 더 넓은 맥락

레위기 19장은 일상생활과 도덕성에 관한 다양한 계명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들이 포함됩니다:

- 점치거나 요술을 부리지 말라 (레위기 19:26)
- 죽은 자를 위해 몸에 베이거나 문신을 하지 말라 (레위기 19:28)
- 음행을 금지할 것 (레위기 19:29)
- 외국인을 친절하게 대할 것 (레위기 19:33-34)

- 노인을 공경할 것 (레위기 19:32)
- 정직한 저울과 추를 사용할 것 (레위기 19:35-36)
- 다른 종류의 씨앗을 섞어 뿌리지 말 것 (레위기 19:19)

이 모든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관심을 반영합니다. 그러므로 각 계명은 그 자체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죽은 자를 위한 베임(19:28)이나 요술 금지(19:26)가 언급되었다고 해서, 머리카락과 수염에 대한 계명까지 이교도 관습에 연결시키는 것은 잘못입니다.

## 계명에 조건문은 없다

### 성경에는 예외 조항이 없다

타나크(구약)에는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는 행위가 애도와 연결되는 구절들이 있지만, **애도 목적이 아니면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도 된다는 조건부 조항은 없습니다.**

이러한 해석은 사람의 생각으로 계명에 없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며, 완전한 순종을 피하기 위해 변명거리를 찾으려는 태도에 불과합니다.

### 계명을 조정하는 것은 반역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을 개인의 편익에 맞게 조정하는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진정한 자세와는 정반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베임과 관련된 구절들은, 그러한 변명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 정통 유대인들

### 그들이 이해하는 계명의 의미

몇몇 세부 사항—머리카락과 수염을 다듬는 방법 등에 대해—잘못된 해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대부터 정통 유대인들은 레위기 19:27의 계명을 이방 관습과는 별개의 것으로 항상 이해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 구분을 유지하며, 이 명령이 애도나 우상 숭배 의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거룩함과 구별됨의 원칙을 반영하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 히브리어 용어 분석

레위기 19:27에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들, 예를 들면 *타키프(תקיף)* (“주위를 깎다, 삭발하다”)와 *타쉬히트(תשיח)* (“훼손하다, 파괴하다”)는 남성의 자연스러운 외모를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거룩한 형상에 어긋나게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앞뒤에 나오는 이방 관습들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 거룩함의 원칙으로서의 계명

레위기 19:27을 이방 의식과 관련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며 편견에 불과합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과 외모를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여러 계명 중 하나이며, 다른 장례나 우상 숭배 의식들과는 명확히 구별된 명령으로 오랫동안 이해되어 왔습니다.

## 예수님의 가르침: 말씀과 본보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삶을 모든 면에서 본보기로 삼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면 아버지와 아들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이 요구는 나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영생을 얻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기로 결심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설령 친구들, 교회, 가족의 반대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 기독교계 대부분이 무시하는 계명들

머리카락과 수염, [츠치트](#), [할례](#), [안식일](#), 그리고 [금지된 고기](#)에 관한 계명들은 거의 모든 기독교인들에 의해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세를 따르지 않기로 결심하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대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